

사무총장 후보

기호 1번 강대흥 선교사



<사무총장 후보 질문>

강대흥 선교사

1. 자기소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저에게 선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사명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엡3:7). 29살에 지역교회 담임목사로 있다가 처음 태국 선교사(33살)로 갈 때 그저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국 목회자들이 저를 통해 은혜받고, 연합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4년간 선교사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먼저 태국에서 란타섬의 미전도종족(바디짚시족)에게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고 자립시켜 현지 교단에 가입했습니다. 현장 선교 구조인 KGAM을 만들어 태국 기독교 총회(CCT)와 협력하여 선교사 17가정과 동역했고, 목회자 훈련 사역(11년)에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한국교회가 복음화되는 과정에서 경험한 자립 자치 자전의 방식으로 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둘째, 한국 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GMS(예장합동 선교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기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전반을 이해하게 되었고, KWMA를 통해 한국 선교계를 섬기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한국선교사들의 네트워크인 KWMF의 공동회장 등 임원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배우고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GMS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2013년 태국에 재입국한 이후 두 가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4개월 과정의 선교학교를 매년 개최하여 선교지도자가 배출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국 목사 20명과 17개월(2017~2019) 동안 교회 개척학교를 열어 훈련하고 전도하게 한 결과 1,13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459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79개의 가정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 태국교회가 스스로 전도하고, 더 나아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로 성장하는데 제가 현지교회와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누구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내(황정신)와 오아시스 힐링 센터(2013)를 방콕에 설립하여 매년 2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에게 3박 4일간 숙박과 디브리핑을 제공하면서 선교사들의 아픔을 같이 품어내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는 현장 선교사로 선교 현장, 선교사, 현지인 교회 리더들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며, 2004년부터 시작한 방콕포럼 등을 통해 초교파적으로 한국선교를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하려고 노력해오며 현장 선교전략에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5년 동안의 한국 목회 경험과 GMS 사무총장으로 사역하면서 교회와 교단을 잘 이해하고, 초교파 선교단체의 DNA 역시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저의 사역 경험이 KWMA에서 회원단체들과 한국교회 선교 전체를 섬길 수 있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교사로서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요이력:

1980년 총신 신대원 졸업, 1982년 - 1987년까지 성은교회(전농동)에서 목회.

1987년 11월에 태국에 선교사로 입국(지구촌 선교회 파송). GMS 선교사(1989년2월)

1989년 KGAM을 설립, 태국기독교총회와 MOU 맺어 17가정이 팀 사역.

KWMF: 서기(2002 - 2004), 사무총장(2004 - 2008)년, 공동 회장(2008 - 2012)

GMS(예정 합동교단선교회): 선교총무/사무총장(2006 - 2010), 태국 주재 순회선교사(2017)

KWMA: 정책위원(2006 - 2010), 선교단체 평가위원(2008 - 2009), 정관개정위원(2008 - 2009),
한선지포 준비위원장(2009), 한국 FTT 코디네이터(2008 - 2010), 이슬람대책위원회 코디네이
터(2007 - 2009), ACTS 연구 교수(2014 - 2020)

국제 네트워크: 국제선교단체들과의 협력 및 동남아의 로잔 리더들과 네트워크

교육: 에딘버러대학원(Th. 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D. Min in Intercultural Study)

사역: 태국 목회자 훈련원, 교회개척훈련, 태국기독교총회와 협력사역. 방콕포럼코디네이터
(2004~), MK호스텔 푸른초장(치앙마이/1997)설립, 세계 기도자학교(WPS) 사무총장

2. 출마하게 된 이유

KWMA는 산하 회원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잘하도록 섬기고 협의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선교 과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한국선교의 과제인, 준비된 선교자원의 발굴과 파송, 국제적 협력, 국내 이주민 다문화 난민 전도, 선교 현장의 과제(책무, 리더십, 현지 구조, 행정, 출구전략, 이양, 은퇴 선교사 등), 그리고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 확산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단 선교부(회)와 초교파 선교단체 양쪽을 모두 잘 이해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교회 목사님, 현장 선교사, 선교단체 리더, 선교학자 등의 협력하여 건강한 한국선교를 세워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KWMA 라는 연합의 장에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3. KWMA가 한국교회와 선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KWMA는 한국 선교계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KWMA는 회원단체(지역교회)와 선교 단체(교단 선교회와 초교파단체)가 함께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 선교 과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대화하도록 돕는 촉매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역은 회원 단체가 맡아야 합니다. KWMA의 핵심 역할은 미래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선교 현장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며,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선교와 앞으로 부상하는 비서구교회 선교의 중간에서 한국선교가 세계선교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내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4. KWMA 회원단체와 직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소통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돌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탁월한 행정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믿는 본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회원 단체와는 열심히 찾아가서 소통할 것입니다. 회원단체들에 일방적 지시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합의를 만들어 섬기겠습니다.

5. KWMA의 방향과 다른 선교정책과 전략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선교적 이해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해당 선교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수용적 태도를 갖고 단체의 입장에서 건강한 전략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6.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선교 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교도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이주민/다문화 사역, 탈북자, 난민 사역, 국내 이슬람 사역 등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내 타문화 사역자 명칭을 언어권 선교사로 부르고, 지역교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파송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선교지 문은 더 닫힐 것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들에게는 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전통적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선교나 직업을 통한 선교를 더 활성화하여 모든 성도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정착을 돕고,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등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적합한 선교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메뉴얼화하여 지역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창의적 대안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단기선교 방안 등이 지역교회에 제시되면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선교적 활동이 저변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7. 신임 사무총장이 된다면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은?

- 1) 모든 선교적 이슈에 대해서 현장 선교사, 지역교회 목사, 선교단체 리더, 선교학자가 연합하고, 소통하여 선교적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2) 30대, 40대, 50대 리더십 그룹을 만들어 한국선교뿐만 아니라 국제 사역의 전문가로 키워 전 세계 선교계와 동역하는 미래의 한국선교를 대비하겠습니다.
- 3) 과제 설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선교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과 위원회가 연중 계속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 4) 산하 단체들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면서 사역 방향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5) 이미 파송된 현장 선교사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한국교회와 더불어 방법을 찾겠습니다.
- 6) 국내 이주민 사역자를 언어권 선교사로 호칭 변경하고, 지역교회가 파송함으로써

사역자들이 자신감을 느끼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7) Target 2030에서 제시된 6대 핵심 분야의 남은 과제들을 변화하는 선교 상황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8) 미래의 선교자원으로 잠재력을 가진 **선교사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 선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세계에 공헌하는 자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9) 정부가 선교단체 건물에 대하여 세금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선교단체에 유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추가하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교가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34년 선교사 재직 기간 중 현지 선교 단체도 만들어 사역하였고, 미전도 종족도 입양하여 자립교회로 세웠습니다. 목사와 평신도 리더들도 교육하였고, 현지인을 훈련하여 교회 개척 운동도 성공적으로 하였습니다. KWMA 리더로서의 경험, GMS에서 경험한 교회와 교단에 대한 문화, 또한 방콕 포럼에서 교제한 선교단체 리더들과 교제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 1) 저는 모든 사안마다 정책위원회(교단 선교부와 초교파 선교단체) 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선교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2) 저는 KWMA 행정과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관리(Governance)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3) 저는 매월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국 교회와 소통을 할 것이며, 대정부 관련 이슈(난민, 다문화,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관련 **선교단체에 유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KWMA를 섬길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힘을 다해 회원단체들과 한국교회를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2020년12월30일, 강대홍 선교사